

Pitfalls of Estimating GFR in Chronic Kidney Disease

Han, Sang-Woo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신장 질환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사구체여과율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구체여과율은 신장 기능의 일반적 평가 외에도 신장 기능의 초기 장애 발견, 신장배설 약물의 적절한 용량 조정, 신장이식 환자 및 조영제 사용 전 환자 평가, 요독 증상의 평가 등 좀더 정확한 평가에 유용하다. 실제 사구체여과율은 이놀린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사용한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그 제한점으로 인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각각 사구체여과율의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표현되는 **Cockcroft-Gault** 공식과 **MDRD** 공식에 의한 비교적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추정 사구체여과율을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4가지 인자를 사용한 간략 **MDRD** 공식에 의한 추정 사구체여과율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성콩팥병의 발견 및 모니터링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상 신기능 또는 초기의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사구체여과율 추정과 이식환자의 사구체여과율 추정 그리고 인종별 불일치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등에 대해 알아보고, 표준화된 혈청 크레아티닌을 사용한 추정 사구체여과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